

사설

규정에 근거한 자치회비 사용

국제캠퍼스(국제캠) 응원단 ‘컬스라’가 자치회비를 지원받고 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자치회비는 매 학기 등록금과는 별도로 학생이 납부한 일정 금액을 학생 자치 조직들에 일정 비율로 나눠 지급된다.

학생회칙 179조 1항에 따르면 자치회비는 직접선거에 의해서 선출된 학생대표를 중심으로 이뤄진 학생 자치 조직에만 지급돼야 한다. 하지만 컬스라는 자치회비를 수령할 수 있는 학생 자치 기구에 해당하지 않았음에도 지원받아 왔다. 그 금액은 2023년 한 학기 기준 120만 원이다.

컬스라의 자치회비 수령 사실은 제56대 국제캠 총학생회(총학)가 자치회비 비율 조정위원회를 활성화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자치회비 비율 조정위원회는 불필요한 행사에 잉여금이

낭비되는 경우를 방지하고자 활성화됐다. 학생회칙 177조 2항에 따르면 모든 재정은 투명한 사용 및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매 학기 결산보고를 해야 한다. 하지만 컬스라는 자치회비를 지원받고 있음에도 자치회비 예·결산안 심의를 받지 않았다. 예·결산안은 자치회비가 공정하게 쓰였는지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지만 다른 단체와 달리 예·결산안을 공개하지도 않았다.

하지만 무엇보다 우려되는 것은 컬스라가 어떻게 자치회비 일부를 지원받게 됐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점이다. 총학과 컬스라 모두 과거 자료의 유실로 컬스라가 자치회비를 지원받은 정확한 기간과 경위를 파악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학생 자치 활동을 위해 사용된다는 자치회비가 어떠한 이유로, 어떠한 과정을 거쳐 컬스라로 유입됐는지

의문스럽다. 더욱이 시작을 모르니 그동안 컬스라가 지원받은 총금액 또한 파악되지 않는다.

국제캠 총학생회는 이번 학기 컬스라에 지원되는 250원 중 50원을 총학생회로 이관한다고 밝혔다. 250원 전체 회수가 어려운 이유는 보칙 11조에 단체 운영 어려움을 고려해 예산 삭감을 점진적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기 때문이다.

원칙상 부합하지 않는 단체임에도 보칙에 의해 보호받는 실정이다. 자치회비를 지급받지 않는 서울캠퍼스(서울캠) 응원단은 교외 행사 참여로 운영비를 마련하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 입학식 등의 교내 행사에 참여해 학생지원센터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더욱더 공분을 사고 있다.

국제캠 총학생회칙 별표 ‘자치회비 비율’을 살펴보면 학생

1인이 납부하는 9,500원 중 250원이 응원단의 몫임이 명시돼 있다. 학생회칙에 반하는 내용이 총학생회칙에 버젓이 적혀 관례가 굳어져 마치 당연하게 여겨져 왔다. 이제야 컬스라에 지급되는 예산을 점진적으로 삭감한다고 했지만, 단지 이러한 해결 방식으로 조용히 끝날 문제처럼 보이지는 않는다.

관행처럼 굳어진 일을 스스로 공개하고 지금부터라도 문제를 바로잡겠다는 56대 총학생회의 모습은 바람직하다. 다만 이 같은 관행이 어떻게 시작됐는지에 대한 조사 작업도 병행하여 좀더 투명한 자치회비 배분에 밑거름으로 삼기를 바란다. 그리고 논란이 생긴 국제캠 총학생회 뿐만 아니라 서울캠 총학생회 또한 이번 사례를 계기로 투명성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을 갖길 바란다.

세시봉

테러주의보

박상희 기자

smtg7475@khu.ac.kr



정치인 테러가 연달아 발생했다. 지난달 2일엔 이재명 대표가 괴한이 휘두른 흉기에 목 부위를 습격당해 수술 받았고 지난달 25일엔 배현진 의원이 괴한에게 머리 부분을 둔기로 가격당하는 무차별 습격을 당했다. 불과 몇 주 만에 비슷한 테러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정치인을 향한 연이은 공격은 과연 연일일지 되돌아보게 된다.

정치인 테러 사건은 과거에도 있었다. 2022년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피습 사건, 200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피습 사건 등이다. 심지어 배 의원을 공격한 범인은 15세 중학생 소년이었다. 구체적인 범죄 동기나 배후는 밝혀진 것이 없지만 무엇보다 궁금한 것은 대체 왜 10대의 미성년자가 정치인에게 흉기를 휘두를 정도의 적개심을 가지게 되었는지이다. 이 대표 피습 이후엔 유튜브와 각종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사건의 배후가 있다’, ‘흉기는 칼이 아닌 나무젓가락’, ‘가짜 칼로 연출한 야당의 자작극’ 등의 음모론과 가짜뉴스가 범람했다.

이 같은 사건은 극단적 정치 대립과 연관 지어 조망할 수 있다. ‘비토크라시(Vetocracy)’라는 말이 있다. ‘거부’를 뜻하는 ‘비토(Veto)’와 ‘민주주의(Democracy)’의 합성어로 상대 정파의 주장을 모조리 거부하는 극단적인 파당 정치를 의미한다. 현재 우리의 정치 문화는 양극단으로 나뉘어 있다. 상대를 증오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혐오를 퍼붓는 비토크라시의 늪에 빠져 있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정치 테러가 민주주의의 훼손으로 이어지는 심각한 범죄행위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유권자와 후보자가 만나 소통하는 직접적인 만남이 차단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다른 물리적 폭력이 일어나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져선 안 된다. 이제는 상대를 적으로 규정하고 혐오하는 극단적인 대립 정치를 청산해야 할 때이다. 정치권은 대화와 타협을 위한 정치 환경을 구축해야 하며 국민은 각종 음모론과 혐오 발언에 흔들리지 않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서로를 상호 존중하는 관용과 타협의 성숙한 정치 문화가 자리 잡고 건강한 민주주의가 유지되길 바란다.

만평이 있는 취재수첩 | 진정한 의미의 국제화

이제는 바뀔 때

이지수 기자

ssu1404@khu.ac.kr



유학생이 늘고 수업도 영어로 진행되는 등 겉보기에는 국제화에 걸맞은 캠퍼스로 변화하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진정한 의미의 국제화라고 보기 어려운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내실 없는 양적 성장은 결국 유학생 수 감소라는 위험 신호로 나타나고 있다.

16년 차 등록금 동결이라는 현실 속에서 유학생은 ‘재정 확충’의 수단으로도 여겨진다. 외국인 학부생 등록금은 2017년 이후 누적 32.7%가 인상됐지만 인상된 만큼 유학생의 만족도도 높아졌는지는 회의적이다. 현재 내외국인의 등록금은 동일 계열이라도 약 60만 원의 격차가 나는 수준인데, 지속적으로 외국인 등록금만 인상하는 차별적인 인상은 우리학교에 이득만을 가져올 리 만무하다.

심지어 기존 외국인 등록금보다 높은 등록금을 책정하고 외국인 특화 전공으로 운영 중인 자율전공학과 글로벌비즈니스 전공의 경우 추가적인 혜택이나 기회의 제공이 필요하지만 찾아보기 힘든 상황이다. 또한 의료경영학과와 호텔관광학의 개론을 합친 듯한 학과 설계는 자체적인 정체성 부재와 특정 영역으로의 쏠림 현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내외국인의 갈등 문제는 또 어떤가. 모든 갈등은 수업에서 발생한다. 대학 수학을 위해서는 ‘한국어 능력’이 필수지만 입학 후 충분한 한국어교육이 이뤄지는 상황도 아니다. 문제 해결의 기초작업이 될 TOPIK 4급 향상 또한 유학생 수 감소로 이어질까 미루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유학생들의 대학 선택은 좀 더 간간해질 것이 분명하다. 대학이 제공하는 교육 내용과 미래 경쟁력 등 유학생 입장에서 살펴볼 여지는 점점 많아질 것이다.

등록금이 인상되는 만큼이라도 질적 성장이 이뤄지길 바라본다.



만평 유학생은 ATM기?

교시 문화세계의 창조
교훈 학원의 민주화 | 사상의 민주화 | 생활의 민주화

경희대학교

1955년 5월 12일 창간

발행인 김진상

편집인 남윤재

편집장 이지수

서울캠퍼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26(회기동)

Tel 02-961-0093~5

국제캠퍼스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덕영대로 1732(서천동)

Tel 031-201-3230~2

인터넷 대학주보 <http://media.khu.ac.kr/khunews>

이메일 khunews@khu.ac.kr

제작 청송디자인 | 인쇄 옴니퍼매디